"통합불교 지향 조계종, 종파라 보긴 어려워"

반야불교문화硏, 2017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조계종 '통합불교' 특수한 모습
19C 후 산신각 및 칠성각 등장
한국불교 기복신앙 현대 과제
"한국불교 발전 가능성 높아"

인도를 비롯한 남방과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 국가별 불교 신행과 전통을 비교 고찰하고 현대적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은 통합불교로 특수한 종파적 모습을 갖춘 종단이라고 언급됐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현대 한국불교의 과제로 '기복신앙'을 꼽았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은 5월 14일 통도사 반야암에서 '불교 신행의 전통과 현대적 과제'를 주제로 2017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종수 순천대 교수는 '조선후기 불교 신행의 전통과 현대적 계승'을 설명하며 "조선후기 이래 통합종단을 표방하며 성립한 종파가 바로 대한불교조계종이며 조계종은 선(禪)·화엄(華嚴)·천태(天台)·염불(念佛)·밀교(密敎)·의식(儀式)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통합불교"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 교수는 "종파라는 것은 가령 선종, 화엄종, 천태종, 정토종 등의 사례로 보듯 불교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불교를 설명하는 집단인데 조계종은 엄밀히 말해 종파라 말하긴 어렵다. 하지만 현실상 또 종파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특수한 경우"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불교 도량에 산신각 및 칠성각은 19세기 이후 세워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기복신앙적인 형태를 차츰 줄여 나갈 수 있는 지성을 갖췄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학력을 자랑하는 국가다. 앞으로 불교를 더욱 명확히 연구하고 부처님 당시의 핵심 가르침을 살려 기복적인 모습을 없애고 건전한 불교로 성장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졌다"고 강조했다.

김진무 충남대 교수는 "중국 불교는 문화혁명 이후 생활선을 정립하고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 저력을 볼 때 큰 성장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 놀랍기도 하다"며 "하지만 저런 모습이 불교인가하고 반문할 때가 많다. 자본주의 형태로 운영되며 스님은 월급을 받고 정치와 결탁되어 있다. 그러나 절을 찾는 사람들의 신심은 순수해서 복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영상 원광대 교수는 일본중세 신불교 조사들의 신행관을 설명하며 "도겐·신란·니치렌 조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고대 말 왕권이 쇠퇴하고 무사들이 정권을 잡던 말법 사상이 유포됐던 시기였다"며 "민중에게 부처님 말씀으로 보살도를 실천하고 대승불교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5월 14일 통도사 반야암에서 '불교 신행의 전통과 현대적 과제'를 주제로 2017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수 순천대 교수는 "조계종은 통합종단을 표방한다. 종파라 말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지안 스님은 불교의 핵심은 탐진치 소멸이며 현대사회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교는 탐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환경을 보존하고 일반 세상 기준과는 다른 우선순위를 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현재 각 나라의 불교현실을 들여다보면 현대사회 동력인 탐진치를 극대화한 경제형태로 구조화되고 있다"며 "불교가 오히려 경제구도인 상업화를 벤치마킹한다. 중국과 대만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로 제시하는 것인지 고찰해 봐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일본에서 생활선이 발달되었다고는 하나 박물관 혹은 기념관처럼 절이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참된 수행문화는 한국이 아니면 보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인도불교의 신행과 현대적 시사점-초기경전을 중심으로(고려대 조준호) △중국불교에서의 신행의 전통과 현대적 과제(충남대 김진무) △조선후기 불교신행의 전통과 현대적 계승(순천대 이종수) △일본중세 신불교 조사들의 신행관?도겐·신란·니치렌을 중심으로(원광대 원영상) 발표됐다. 각 발표에 이어 논평자로는 동국대 김한상 교수, 부산대 안경식 교수, 한국교원대 박병기 교수, 창원대 송재근 교수 등이 참여했으며 종합 토론에서는 지안 스님이 함께 참여했다.

하성미 기자

조계종부산聯, 재가 하안거 수행결사

6월 7일 오후 2시 범어사 설법전

재가자들의 90일 안거 수행 결사가 시작된다.

(사)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2017년 재가 하안거 수행결사 입재식을 6월 7일 오후 2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봉행한다. 입재식은 1부 금강경 독송으로 시작해 108배 후 안거 수행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2부 법회는 삼귀의 및 반야심경으로 문을 열어 회장 심산 스님이 인사말씀으로 안거 수행에 참여한 재가자들을 격려한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법문으로 안거에 참여한 재가자들에게 수행에 참뜻을 전할 계획이다.

2017년 재가 하안거 수행은 6월 9일~9월 5일 90일 동안 진행되며 안거 기간 수행을 실천하고 점검받기 원하는 모든 재가 신도는 참가 가능하다.


(사)조계종부산연합회는 2017년 재가 하안거 수행결사 입재식을 6월 7일 오후 2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봉행한다. 작년 자료사진

(사)조계종부산연합회는 "재가 안거 수행을 통해 자신의 본래면목을 참구하는 시간이 되고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실천하시길 바란다"고 동참을 독려했다. (051)501-7554

하성미 기자

여여힐링선원, 자선 禪서예 소장전

5월 29일~6월 1일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

부산 여여힐링선원이 자선 禪서예 소장전을 개최한다. 이번 여여힐링선원은 전시 수익금 전액을 암환자 치료비로 후원하고 캄보디아 학생에게 자전거를 선물한다.

부산 여여힐링선원(선원장 효운)은 5월 29일~6월 1일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 '불자 자선 선서예 소장전'을 개최한다.

작품은 역대 종정을 역임한 대선사 스님들의 유작들이 선보여지며, 특히 초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청담 스님의 마지막 유작도 선보인다. 아울러 서옹 스님, 서암 스님, 월하 스님, 석정 스님, 경봉 스님, 탄허 스님, 월서 스님, 수안 스님, 정여 스님 등 200여개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그 외 황산 이수백 선생의 도자기와 남곡 김영국 선생의 서예초대전도 함께 개최된다.


부산 여여힐링선원은 5월 29일~6월 1일 '불자 자선 선서예 소장전'을 개최한다. 청담 스님의 마지막 유작 '佛'

동래구불교聯, '孝心'으로 한마음

5월 14일 명륜초에서 경로잔치… 1000여 어르신 참석

부산동래구가 효심으로 하나가 됐다.

부산동래구불교연합회(회장 자관)는 5월 14일 명륜초등학교에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경로잔치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인 경선 스님이 참석해 격려했으며 동래구불교연합회 회장 자관 스님·부회장 효문 스님·박종원 초대신도회장, 이진복 국회의원, 전광우 동래구청장 등 동래구 지역구 내빈들이 찾아 어르신들께 인사하고 건강을 발원했다.

지역 어르신 1000여명은 운동장에 마련된 밥차에서 바로 조리된 따뜻한 밥과 과일, 떡, 음료를 즐겼다. 아울러 다채롭게 마련된 공연을 보며 박수치고 노래하며 흥겨워했다. 무대는 통도사 시명 스님의 찬불가, 가수 엄재원, 최태용, 한송이 등이 참여했으며 어르신들의 흥에 맞춰 트로트 및 민요 등으로 꾸며졌다.

앞서 동래구불교연합회는 창립 후 처음으로 신도회장을 임명했다. 임명 후 이날 공식행사에 처음 참석한 박종원 대표이사는 "임명 후 공식적으로 어르신들께 인사드린 것은 처음"이라며 "제가 병원 내 장례식장을 운영한다.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라고 했다. 수의를 오늘 1000벌을 선물로 마련했고 음료수와 수건도 마련했다. 수의를 준비하는 미풍양속 의미가 만수무강이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바라며 앞으로도 스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은 "부산지역구 총 16개 가운데 그 어느 구 보다 활성화된 곳이 동래구"라며 "특히 오늘은 경로잔치로 나눔행을 펼쳤다. 백행의 근본은 효다. 그 근본을 실천하고 따뜻한 세상을 이루는데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동래구불교연합회는 5월 14일 명륜초등학교에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참가한 어르신이 노래 공연에 맞춰 흥겨운 몸짓을 하고 있다.

동래구불교연합회장 자관 스님은 "지역민과 소통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더 없는 기쁨"이라며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효를 실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제2회 부산문예창작마당 개최

BBS부산불교방송, 6월 3일 삼정더파크

문학과 그림 그리고 사진으로 자신의 꿈과 생각을 마음껏 펼치는 장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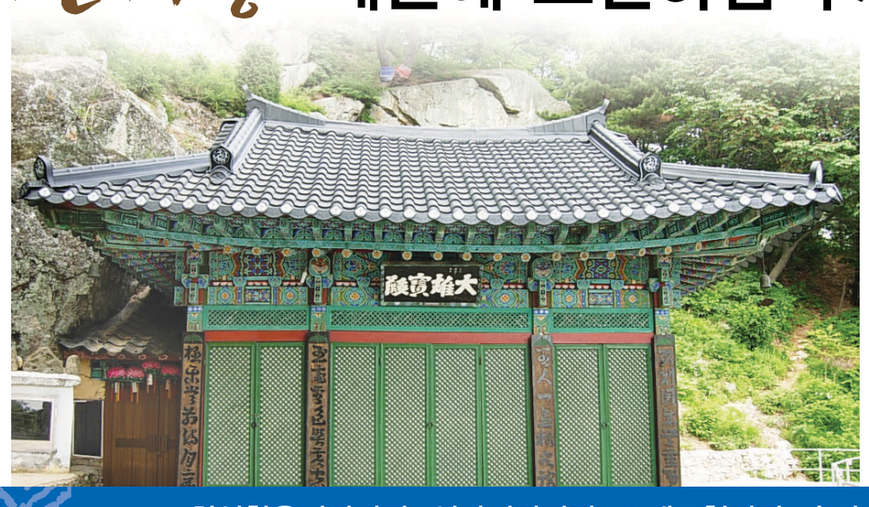
BBS부산불교방송(사장 수불)은 6월 3일 오전 10시 삼정더파크 동물원에서 제2회 부산문예창작마당을 개최한다. 우천 시 6월 4일로 연기된다.

접수 신청은 온라인(https://www.moonye.net)으로만 가능하며 3000명 선착순이다. 참가부문은 글짓기로 운문과 산문으로 나뉘며 그리기 및 사진촬영 등이다. 참가대상은 유치원생부터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자에게는 기념품과 남원 돼지감자로 직접 만든 스님 자장면이 제공된다. 시상은 부산광역시장상, 부산광역시의회의장상, 부산광역시교육감상, 부산지방경찰청장상 등 300여 명에게 시상할 예정이며 ? 발표는 6월 16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051)797-5114


BBS부산불교방송은 6월 3일 오전 10시 삼정더파크 동물원에서 제2회 부산문예창작마당을 개최한다. 작년 자료 사진

하성미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위패몰.com

원로대덕스님들께 삼가 문안인사 올립니다.

사찰에서 살다보니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쓰다보니 주위에서 나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다보니 이렇게 지면을 통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쓰기 좋고 보기 좋으며 법당내의 격을 높이고자 감히 디자인 하고 고안하였습니다.

조상의 왕생극락을 불전에 기원하는 후손들의 정성을 섭인(攝引)하여 법당을 여법하게 장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沙門) 일허(一虛) 나무 관세음보살


2단 합동위패 ① / 2단 합동위패 ② / 3단 합동위패 ①
용전대 ① / 용전대 ② / 목걸이마이크 ①
목걸이마이크② / 축원카드 보관함 / 소대위패① / 소대위패②

살펴보시고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산 서구 남부민동 93-1번지
☎ 051) 244-2040

위패몰.com

七寶寺